

있는 모습 그대로

본문: 창세기 27:15-29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eb54VrEjMvQ?si=TykQ5-fw2jvX7wtt>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아침 무거운 가면을 씩니다. 이 위선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유능한 척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 무거운 가면을 교회에 올 때도 그대로 덮어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 진짜 밑바닥을 들기만 사람들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치명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모습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좋은 옷을 훔쳐 입고, 손과 목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둘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짐승의 가죽과 옷 냄새에 완벽하게 속아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옷을 입고 얻어낸 복이었기에, 진짜 모습이 들기만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숨기던 위선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눈먼 이삭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덧댄 냄새나는 종교적 가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서 에서의 옷 냄새를 맡고 축복했듯,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취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관찰]

1. 이삭을 속이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무엇을 입히고 손과 목에 무엇을 둘러 주었습니까? (창 27:15-16)
2. 눈먼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만져본 후, 이들의 음성과 손에 대해 각각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 27:22)

[삶의 적용]

1. 나는 혹시 내 연약한 진짜 모습을 들기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쓰는 무거운 위선의 가면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2. 내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든 헛된 위장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나를 포장하던 모든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